

OPAC에서의 AACR2R의 문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AACR2R in the OPAC

이명규(Myoung-Gyu Lee)*

목 차

1 서론	4.3 표목지시사항
2 AACR2R과 MARC에 대한 비판	5 설문조사 분석
3 AACR2R과 MARC에 대한 전망	5.1 분석대상 및 방법
4 온라인환경에서의 AACR2R의 문제점	5.2 분석 내용
4.1 구두법과 약어	6 결론
4.2 서지기술사항	

초 록

도서관목록의 자동화에 의해 많은 도서관은 온라인 열람목록의 환경으로 변환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편목규칙으로 인정받아왔던 AACR2와 이를 자동화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MARC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과, 갱신을 주장한 문헌을 살펴보고, 온라인환경에 따른 편목법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특히 AACR2R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OPAC has been changed by the automation of library catalog, AACR2 recognized as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Cataloging Rules, and MARC transforming to automation program have some partial irrationality. In this study, I presented the methodology improving practically and specifically Cataloging Rules adjusted to Online environment, especially centering on AACR2R, after I reviewed the literature asserting a criticism and a renewal of AACR2 and MARC.

키워드 : 온라인열람목록, 편목법, MARC, AACR, 서지기술

* 대불대학교 도서관 사서 / 문학박사

■ 논문접수일 : 1999년 3월 2일

1 서론

1960년대에 시작된 목록의 자동화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카드생산을 위한 기계가독편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컴퓨터기술과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목록의 데이터를 자관내에서나 자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서관목록의 자동화가 카드목록의 생산을 위한 기계가독편목법에서 온라인 열람목록의 환경으로 변환됨에 따라,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편목규칙으로 인정받아왔던 AACR2와 이를 자동화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MARC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근년에는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과, 갱신을 위한 주장을 문헌을 통해서 신중히 분석한 다음, 끝으로 온라인 환경에 따른 편목법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AACR2 기술부의 구두법과 약어, 서지기술사항, 그리고 표목지시사항 중심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도서관의 전문사서들과 대학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AACR2R과 MARC에 대한 비판

현재 통용되고 있는 AACR2R과 모든 MARC는 목록의 자동화를 위한 규칙이다. 그러나 이들 규칙들은 온라인 열람목록의 환경이 현재와 같이 일반화되기 이전 이른바 제1세대의 온라인목록을 위한 것이다. Fattahi가 말한 바와 같이 "사실상 제1세대의 온라인목록은 거의 컴퓨터화된 카드목록이었으며, (온라인목록의) 요구에 따라 개발되어 양립할 수 있는 규칙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하였다(Fattahi 1995)." 그리하여 근년에는 AACR2R이나 MARC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agler는 'AACR2R은 아직도 다만 데이터 입력을 위해서만 쓰여진 규칙이지 온라인목록에서 요구되는 표현(displays)과 출력형식(output formats)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고, Maxwell은 'AACR2R은 수작업 시스템에 기초를 둔 것이지 온라인목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이 규칙은 온라인환경에 있어서의 서지레코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Maxwell 1989)'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Rowley는 온라인 열람목록(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 OPAC)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은 목록의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 실망스럽게도, 1988년 개정판은 온라인 열람목록(OPAC)의 출현으로 편목자들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기회를 고려하도록 제안하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Rowley 1989)."고 언급하므로써 AACR2R을 비판했다. 따라서, Rowley는 OPAC지향적인 환경에서의 AACR2R의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Boll은 유사한 연구에서 Rowley에 동의하고, AACR2R은 종이를 기초로한 목록에 적용된 것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도 컴퓨터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Boll은 새로운 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는 현재, 1908년이래 최초로, 실제로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는 전혀 새로운 환경, 전혀 새로운 잠재성을 이끌어 왔다(Boll 1990).”고 말했다. 이 점은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환경, 즉 온라인 열람목록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편목규칙 적용에 참여해 온 Ayres는 “매뉴얼과 컴퓨터시스템의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편목규칙을 마련하는 현재의 정책은 그것이 자동화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만 한다(Ayres 1990).”고 지적했다. 간단히 말하면 Ayres는 카드목록에서 기본이 되었던 규칙은 온라인 열람목록의 환경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Fattahi는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여러 편목전문가들이 AACR에서 당면하는 난점은 온라인 열람목록의 구조, 특성 및 성능이 그 이전의 카드목록과 상당히 다른데도 그것이 서로 다른 목록의 포맷(목록카드, COM, OPACs)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Jeffreys에 따르면, ‘컴퓨터화된 목록, 특히 온라인 열람목록(OPAC)의 출현은, 도서관의 목록에 대한 형태적(물리적)인 외형이나 내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Jeffreys 1993)’는 점이다. 그는 AACR2가 아직도 5 × 3(inch) 카드를 기초로한 목록저록/레코드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OPAC은 이제 이 규칙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만 하고 편목규칙은 이제 이용자들의 요구와 현대의 기술에 따라 맞춰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Bourne은 “AACR이 목록포맷과는 별개의 것인데도, ...카드목록과 OPAC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 카드목록의 기본구조에서 동

인된 것은 아니다(Bourne 1993).”고 믿었다. 온라인 열람목록은 12.5 cm × 7.5 cm 카드의 공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AACR은 이들 두 가지(즉 공간제한을 받는 카드와 OPAC)를 위해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해서 이것이 온라인 열람목록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Wajenberg는 ‘편목기준의 미래’에 관한 논문에서, 온라인 목록은 아주 다른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이 규칙은 카드목록이나 책자목록의 상황에서는 의미가 통하지만, 표목에 대한 키워드 접근법을 가진 온라인 목록을 위해서는 비생산적이다(Wajenberg 1990).”고 AACR2R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Fattahi는 “MARC는 기본적으로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카드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포맷으로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환경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년 동안에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의 큰 발전이 있었고, 한편, 온라인 목록에 대한 서지적 레코드의 구조에 있어서 더 융통성이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MARC는 아직도 1960년대에 있어서의 서지적 데이터의 순서와 성격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ACR2에 있어서의 몇 가지 부적절한 사항 때문에 MARC포맷은 AACR2의 규정에 없는 몇 가지 별도의 필드를 마련해야만 한다. Attig는 AACR2의 일부 규칙인 ‘기술보고서’, ‘회귀도서’, ‘분출’, ‘컴퓨터 파일’, ‘고문서’, ‘입체 자료’, ‘전거’, ‘장서와 소장처’ 등의 규칙을 반드시 따르지 않은 USMARC의 몇가지 포맷발전을 조사하였다(Attig 1989). Svenonius는 Attig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방향으로 점진적인 추세와 더불어, 장서와 소장처를

위한 USMARC포맷의 개발은 무엇이 서지기술(library description)의 유일한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를 AACR2가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다(Svenonius 1989)."고 말하고 있다.

Gorman은 AACR2와 MARC포맷에 대해서 그들의 내부적 모순과 온라인 목록과 일치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고(Gorman 1989), MARC포맷이 지니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은, 특히 온라인 목록의 밝은 미래가 예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Gorman et al. 1990). 그리하여 "AACR과 MARC는 온라인환경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정필모 1996)."

3 AACR2R과 MARC에 대한 전망

AACR의 미래에 관해서 Intner는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보의 생산과 전달의 기술에 있어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Intner 1988)"고 지적하고, 편목 규칙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규칙들이 적용될 자료에 적절해야 하기 때문에 AACR의 신판, 즉 AACR3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Smiraglia는 "전반적으로는 서지통정, 특정한 부분에서는 편목기술법, 그리고 AACR은 기록된 지식의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변경되어야만 한다(Smiraglia 1992)"고 말하고 있다.

Boll은 AACR의 신판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두 질의 규칙으로 된 이른바 "AACR3"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즉 하나는 지성적, 판단

적 및 서지적인 편목의 측면의 규칙이고, 또 하나는 미세하고 선택적인 컴퓨터의 요구사항이나 혹은 조작하는 관례를 열거하는 규칙이다. 다시 말하면 Boll이 말하는 'AACR3'은 AACR2와 MARC를 갱신해서 이들을 모두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Wajenberg는 "미래의 환경은 아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온라인 목록은 편목규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AACR2R의 미래에 관해서 "온라인목록을 위한 규칙은 결국 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대한 규칙에서는 대단히 많은 급진적인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Wajenberg는 이 규칙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는 이 규칙 중의 특정한 장에 대한 완전한 재고를 필요로 한다고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대한 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이 규칙에서 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들을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Brunt는 목록생산기술이 크게 변했고, 따라서 전자목록이 서지적 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욱 발전될 것이므로, 목록기술법을 다루는 이 규칙은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AACR2에 대한 필요한 변경에 관해서, Brunt는 이 규칙의 재설계는 온라인 목록의 특성과 성능, 특히 탐색과 검색성능에 기초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Brunt 1992). 그러나, Brunt도 AACR2의 갱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Wajenberg와는 대조적으로 Tucker는 AACR2R에 대해서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기본저록표

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는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서지적기술을 위한 규칙에서 약간 조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Tucker 1992). 이와 같이 Tucker는 AACR2R의 갱신에 대해서 전반에 걸친 주요한 변경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신빙성을 보여주고 있다.

Carpenter는 “온라인목록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이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편목규칙을 편찬해야만 한다(Carpenter 1992a)”고 하였다. 특히 그는 일련의 편목규칙을 편찬하면서 기술적(technological)인 면과 개념적(conceptual)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Tillett은 편목규칙과 MARC포맷이 미래의 서지계(bibliographic world)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변화를 겪을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그녀는 그 규칙에 서문부를 두어서 도서관 목록을 편찬하는데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 개념을 설명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Tillett 1992).

그러나, Carpenter는 “목록기술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그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변화에 대한 그들의 제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적 혹은 경험적 연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Carpenter 1992b)”고 믿고 있다.

한편, MARC에 대한 전망은 AACR에 대한 미래의 전망에 비하여 더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Weihs와 Howarth는 MARC 레코드를 기초로한 시스템에 대한 AACR2R의 규칙개정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코딩, 레코드와 필드의 길이, 및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eihs and Howarth 1988). 그러나 이들은 코딩, 레코드와 필드의 길이, 및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Fattahi에 의하면 MARC포맷과 AACR과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들 두 가지는 서지적 레코드의 코딩과 내용을 함께 다루는 단일의 기준으로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한편 Attig는 이 두 가지 기준들(tools) 사이의 많은 유사성에 기초해서 “결합된 AACR2-MARC, 즉 서지적 데이터의 내용과 기호표시의 두 가지를 다루는 단일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Gorman은 AACR2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 MARC도 아주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AACR2와 MARC format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서 이른바 “HYPERMARC”를 편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Gorman 1991). 이상과 같이 이들은 모두 획기적인 갱신을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온라인환경에서의 AACR2R의 문제점

앞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ner나 Boll이 제안한 AACR3이나, Attig가 제안한 AACR2-MARC나 또는 Gorman이 제안한 HYPERMARC는 모두 현재의 AACR2와 MARC를 대폭적으로 갱신하여 하나의 통합된 온라인편목규칙을 편찬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규칙이 가까운 장래에 동시에 편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Carpenter가 말한 바와 같이 목록기술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그 불만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변화에 대한 그들의 제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두 가지의 규칙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자면 그 작업량이 너무나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목록전문가와 컴퓨터전문가들의 협동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방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현재의 MARC가 AACR2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것처럼, AACR2R이 완전히 개정된 연후에야 이에 따라서 MARC가 다시 갱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Tucker가 예견한 바와 같이 AACR2R에 대해서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기본저록표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는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서지기술을 위한 규칙에서 약간 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CR2나 MARC의 개정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온라인환경에서의 AACR2R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1 구두법과 약어

Carpenter가 말한 '목록기술법에 있어서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분명히 이용자들의 불만이 아니라 목록편찬자들의 불만이고, 또한 현재의 AACR이나 MARC가 과거 약 20년 동안의 온라인카드목록을 기초한 서지기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이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목록에서 이용자들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서지기술 양식에 대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카드목록의 경우보다 훨씬 더 검색하기에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필요에 따라 카드목록 생산양식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생략한다면 AACR2R이나 MARC는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목록편찬자들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목록의 경우,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예는 (그림 1)과 같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목록의 이용자화면을 보면, 카드목록의 경우와는 다르게 각각의 서지기술사항 앞에 마침표·빈칸·붙임표·빈칸(-)의 구두점이 없이 서지기술항목마다

서명저자	Robert Browning's poetry / James F. Loucks.
판사항	Norton Critical edition
발행사항	New York : London : W.W. Norton & Company, Inc., c1979.
형태사항	604 p. : 21 cm.
서지주기	Includes index.
I S B N	0393-09092-2
분류번호	KDC 821.8
	DDC 821.8
청구기호	821.8 B885r

〈그림 1〉 온라인목록의 이용자 화면(서양서)

기술사항명을 표시해주고, 사항마다 문단을 달리 하여 기술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다.

ISBD의 구두법은 기술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시각적인 인식(서로 다른 언어의 레코드가 상호교환될 경우에 유의)을 용이하게 하고 어떤 레코드의 기술부 안에서 여러 필드와 서브필드를 구별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기계화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설계된 것이다(정필모, 현규섭, 오동근 1993). ISBD의 구두법이 모든 언어의 문제를 제거시켜 줄 '간단한 포맷인식 프로그램'에 의해 서지 레코드를 기계포맷으로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기대했던 Sumner Spalding의 낙과론은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Sumner Spalding 1973).

따라서, ISBD의 구두법 중에서 특히 마침표·빈칸·붙임표·빈칸(. —)의 구두점은 카드목록이나 책자목록에서는 필요하나 온라인목록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Lubetzky는 "ISBD의 기호를 포함시킨 것은 컴퓨터와는 별도로 이용자를 위해서 저록(entry)에 커뮤니케이션문자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컴퓨터를 위해서도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기호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가 없으며, 그러한 기호들에 의한 혼란은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Lubetzky 1979)."며 기호의 모호성을 얘기했으며, Ayres는 Lubetzky의 말을 지지하고, ISBD의 기호는 이용자들에게 레코드의 내용을 모호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의 모든 구두점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Rowley는 "AACR2는 많은 규칙과 페이지를 구두점에 할애하고 있다. OPAC에 있어서 구두점은 브라우저에는 필요할 지라도 검

색에 있어서는 중요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며, 온라인환경에서의 구두점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따라서, AACR2의 구두점에 관한 보다 간명한 안내지침서를 마련하여 좀더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ISBD의 구두점은 일반적인 관행과는 전혀 다르게 구두점을 모든 사항이나 세부사항의 앞에 둔다는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이용자들에게 친숙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견상으로는 ISBD의 구두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자면 컴마(,)와 피어리어드(.)만을 구두점으로 삼고, 나머지의 대등기호(=), 콜론(:), 사선(/), 세미콜론(;), 앰퍼샌드(&) 및 더하기기호(+) 등의 기호는 모두 각 사항이나 세부사항의 앞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기호(Precedence code)라고 명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한편, 양서를 대상으로 하는 AACR2R의 경우 edition이나 edited를 ed.로, revision이나 revised를 rev.로, compilation이나 compiled를 comp.로, translation이나 translated를 tr.로, illustration이나 illustrated를 ill.로 표현해 왔다. 그러나, 이들 약자들은 사전에 여러 단어의 약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ed.는 edition(판)이외에도 education(교육), editor(편집자) 등의 약자로도 사용되고, rev.는 revision(개정)이외에도 revolution(혁명), revolving(회전하는), revenue(세입), reverse(역, 반대) 등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comp.는 compilation(편집)이외에도 comparision(비교), composer(작곡가), composition(구성, 작곡, 작문), compound(합성

어) 등의 약자로 사용되고, tr.은 translation(번역)이외에도 transport(운송), treasurer(회계원), transitive(타동사), trustee(보관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약자들은 사용자에 따라 혹은 혼돈할 가능성도 있고, 더구나 이러한 약자들은 일반적인 통용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약자들은 종래의 카드목록에서 카드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목록에서는 이러한 스페이스의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자 이외에 이상과 같은 약자의 사용을 금하고 완전철자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4.2 서지기술사항

온라인목록이 카드목록에 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 이외에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된 가장 큰 장점은 Bourne이 말한 바와 같이 "카드목록의 경우처럼 지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서지기술을 사항별로 별도의 독립된 문단으로 기술할 수 있고, 각각의 문단 사이의 행간도 넓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서명저자사항에서는 서명이나 부서명이나 여타서명정보나 대등서명 등의 기재방식에서는 현재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저자표시에서 여러 저자의 공저서의 경우 카드목록에서 지면의 제한 때문에 세 사람까지의 공저서에 한해서 기술사항에 기입하고,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는 그들 중에서 첫머리에 기재된 한 사람만 기입하고, 나머지 저자는 저자표시에서 생략하는 동시에 부출표목으로도 내주지 않았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AACR2R에서는 "만일 단일의 저자 표시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동일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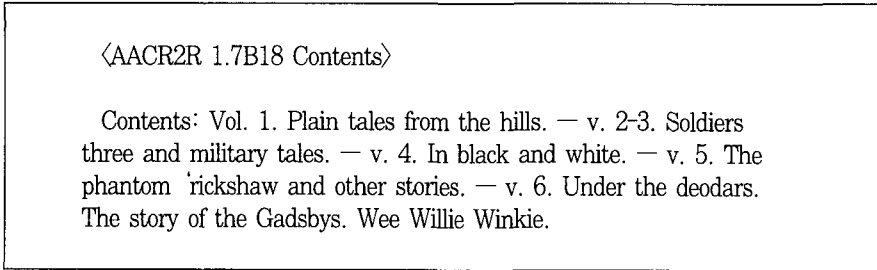
준의 저작성을 가지고 있는 4인 또는 4단체 이상이 기명되어 있으면, 그 저자들이나 단체들 중의 첫 번째 저자를 제외하고 모두 생략한다. 생략기호(…)로 생략을 나타내고, et al.(혹은 비로마체로서 동등하다는 표시)을 첨가하고 각괄호({ })로 묶는다"(1.1F5)고 하고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America's radical right [GMD] / Raymond Wolfinger ... [et al.]

Dickens 1970 [GMD] : centenary essays / by Walter Allen ... [et al.] ; edited by Michael Slater

다시 말하면, 이상과 같은 경우 공저자이거나 공편자이거나 공역자이거나 그 저작에 대한 공헌자들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저자나 공편자나 공역자는 세 사람까지만 기입한다는 기준이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는 공동연구나 공동저작이 많아지고, 특히, 특정한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각 학과의 창립기념논문집이나 주요한 학자들의 회갑, 정년, 또는 고회기념논문집 등은 단행본으로서 심도 있는 논문들이 수록되는데 이들 저작이나 논문들이 온라인목록에서도 누락되고, 주로 주제별 저널을 대상으로 하는 색인에서도 누락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사람 이상의 공저서의 경우도 저자명을 모두 자료에 쓰여진 문자와 순서대로 기술사항에 기술해야 한다.

주기사항에 있어서도 AACR2R에는 모두 상세히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그대



〈그림 2〉 AACR2R에 나타난 목차내용주기

로 준수했을 경우 주기되는 내용의 분량이 많아서 카드목록의 경우는 그 지면의 제한때문에 실제로는 이용자들의 열람목록에는 수록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AACR2R에서 (그림 2)와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예에서는 주기의 내용이 다섯가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내용주기는 20가지나 30가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들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기술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주기를 기록하고, 표목지시사항까지 기술하자면 카드목록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혹 주기까지는 가능하다 할 지라도 이러한 내용목차가 접근점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이용자들에게는 거의 무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온라인환경에서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기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주기는 각각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표목지시사항에서 '저자명 - 논제', 그리고 '논제 / 저자명'의 표목지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자나 개정자나 삽도자 등 이른바 제 2차의 저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한편, AACR2R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접근점 및 정확한 문헌 제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단일 저자의 단행본에서도 목차주기를 제공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주기내용이다. 그리고, 이 목차주기 또한 각각 모두 접근점이 될 수 있도록 주제로 부출표목지시를 해야한다.

4.3 표목지시사항

AACR2R에는 표목지시사항에 대한 규칙이 없이 다만 LC의 실무적인 관행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기본표목(main entry)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AACR2R은 현재까지도 main entry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표목은 이미 표출되어 있으므로 다만 부출표목만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대략 주제명, 분류번호, 서명, 공저자, 기타 부차적 저자 등의 순이다.

또한, 표목지시사항에는 종래의 카드목록의 경우와는 달리 부출표목이나 분출표목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라인환경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획기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카드목록의 환경에서는 부출표목이나 분출표목이 많아지면 많아지는만큼, 즉 접근점이 많아지는만큼, 저록의 카드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4인이상의 공저서의 경우 기술사항에서 뿐만 아니라 부출과 분출을 제한했던 것이라고

〈표 1〉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도

응답자	사 서	일반 이용자		계
		문헌정보학전공자	비전공이용자	
인원(명)	25	15	35	75
비율(%)	33.3	20.0	46.7	100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환경에서는 일단 한 저록에 대한 master file만 작성되면 표목의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카드목록의 경우처럼 file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뚜렷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설문조사 분석

5.1 분석 대상 및 방법

4장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대학도서관에서 편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와 일반이용자 등 총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앞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규칙(관례)과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규정(안)을 제시하여 사서 및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을 하는데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사서 25부와 이용자 50부 등 총75부이며 조사 방법은 E-mail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대상을 사서와 일반 이용자로 분류하고, 일반 이용자는 다시 문헌정보학 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의 분포도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분석방법은 사서와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는 다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이용자(이하 문헌정보로 통용함)와 비전공 이용자 사이의 차이와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SA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단순집계, 카이스퀘어(χ^2)분석과 윌콕슨 부호서열검증(Wilcoxon sign test)을 항목에 따라 모두 이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만을 이용하든지 하였다.

분산분석은 유의수준 1%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표(cross-tabulation)에 대해 카이스퀘어분석을 행하여 Prob가 유의수준 0.01보다 작아 응답자군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명되면 윌콕슨 부호서열검증을 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검증은 두 응답(알고 있는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P가 유의수준 0.01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고 판명한다. 즉 어느 한쪽의 응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순집계에서 %가 많은 쪽으로 판별하면 된다.

5.2 분석 내용

5.2.1 OPAC 이용경험 유무

이용자가 OPAC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설문조사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명의 응답자 중

〈표 2〉 OPAC이용 경험유무 분석표

구 분	자주 이용한다	가끔 이용한다	1-2회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계
인원(명)	39	27	8	1	75
비율(%)	52.0	36.0	10.7	1.3	100

에서 98.7%가 OPAC를 이용해서 자료를 검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2 약어의 의미 인식 여부

과거의 카드목록에서 주로 쓰던 약자는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는 완전철자로 써야 한다'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서지기술사항에서 기술되는 7개의 약자를 제시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약자의 의미를 기술하게 하였다. 서지기술사항에서만 쓰는 약자에 대해 다른 의미로 기술한 내용은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를 각각 분석하여 보면, 목록의 판사항에서 주로 쓰이는 ed., 형태사항에서 주로 쓰이는 ill., col. 그리고 발행사항에서 발행지 표시인 N.J.에 대한 이해여부의 응답 분석 결과 Prob가 0.001이 된다. 그러므로 Prob는 유의수준 0.01($P < 0.01$)보다 작다. 따라서 응답자군 사이에 차이가 있다. 즉 ed.에 대해서, 사서(25명)의 경우는 모두 ed.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으나, 이용자군에서는 많은 수(36명)가 ed.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ill.에 대해서는, 사서(25명)와 문헌정보전공자(15명)는 모두 ill.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비전공 이용자는 35명 중에서 27명이 ill.(삽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l.에 대해서도, 사서(21명)와 문헌정보이용자(12명)는 대부분 col.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일반이용자(32명)는 col.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의 발행사항에서 사용되는 미국지명인 N.J.에 대해서는 사서 14명이 N. J.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일반 이용자군(50명)에서는 N. J.(New Jersey)의 의미를 모두 모르고 있다.

반면에, 목록의 형태사항에서 주로 쓰이는 p.와 cm.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Prob가 0.047과 0.024가 된다. 그러므로 Prob는 유의수준 0.01($P < 0.01$)보다 크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자군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사서(25명)와 문헌정보이용자(15명)는 모두 p.와 cm.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일반이용자중 비전공자도 p.(페이지)의 의미를 35명 중에서 30명(85.71%)이 알고 있고, cm.의 의미는 29명(82.86%)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른 약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p.와 cm.의 의미는 일반이용자도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목록의 발행사항에서 주로 쓰이는 Co.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Prob가 0.243이 된다. 그러므로 Prob는 유의수준 0.01($P < 0.01$)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자군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전체 응답자의 53명(70.67%)이 Co.(Company)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표 3〉 각 약어에 대한 응답 분석표

구 분	사 서	일반 이용자		계	비 고
		문헌정보전공	비전공		
ed.	알고 있다	25 (33.33)	4 (5.33)	10 (13.33)	39 (52.00%) Prob=0.001 (P < 0.01)
	모른다	0 (0.00)	11 (14.67)	25 (33.33)	
	계	25 (33.33)	15 (20.00)	35 (46.67)	
ill.	알고 있다	25 (33.33)	15 (20.00)	8 (10.67)	48 (64.00%) Prob=0.001 (P < 0.01)
	모른다	0 (0.00)	0 (0.00)	27 (36.00)	
	계	25 (33.33)	15 (20.00)	35 (46.67)	
col.	알고 있다	21 (28.00)	12 (16.00)	3 (4.00)	36 (48.00%) Prob=0.001 (P < 0.01)
	모른다	4 (5.33)	3 (4.00)	32 (42.67)	
	계	25 (33.33)	15 (20.00)	35 (46.67)	
p.	알고 있다	25 (33.33)	15 (20.00)	30 (40.00)	70 (93.33%) Prob=0.047 (P < 0.01)
	모른다	0 (0.00)	0 (0.00)	5 (6.67)	
	계	25 (33.33)	15 (20.00)	35 (46.67)	
cm.	알고 있다	25 (33.33)	15 (20.00)	29 (38.67)	69 (92.00%) Prob=0.024 (P < 0.01)
	모른다	0 (0.00)	0 (0.00)	6 (8.00)	
	계	25 (33.33)	15 (20.00)	35 (46.67)	
N.J.	알고 있다	14 (18.67)	0 (0.00)	0 (0.00)	14 (18.67%) Prob=0.001 (P < 0.01)
	모른다	11 (14.67)	15 (20.00)	35 (46.67)	
	계	25 (33.33)	15 (20.00)	35 (46.67)	
Co.	알고 있다	9 (12.00)	6 (8.00)	7 (9.33)	22 (29.33%) Prob=0.243 (P < 0.01)
	모른다	16 (21.33)	9 (12.00)	28 (37.33)	
	계	25 (33.33)	15 (20.00)	35 (46.67)	

〈표 4〉 구두점에 대한 이해의 분석표

구 분	사 서	일반 이용자		계	비 고	
		문헌정보전공	비전공			
구 두 점	모두 알고 있다	25(33.33)	11(14.67)	5(6.67)	41(54.67%)	Prob=0.001 (P < 0.01)
	과 :은 안다	0(0.00)	2(2.67)	9(12.00)	11(14.67%)	
	+는 안다	0(0.00)	1(1.33)	1(1.33)	2(2.67%)	
	모두 모른다	0(0.00)	1(1.33)	20(26.67)	21(28.00%)	
계	25(33.33)	15(20.00)	35(46.67)	75(100.00%)		

이상과 같이 〈표 3〉을 살펴 보았을 때, p., cm. 과 같은 약자는 사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군에서도 통용이 되는 범용성이 있는 약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약자들은 사서 및 문헌정보학 전공의 이용자에게는 통용이 되는 약자(ill., col.)이지만 비전공 이용자에게는 혼돈을 가져오는 약자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는 범용성이 있는 약자 이외의 약자는 완전철자를 쓰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5.2.3 구두법

목록에서 사용되는 구두점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를 분석한 결과 Prob가 0.001이다. 그러므로 Prob는 유의수준 0.01(P < 0.01)에 포함된다. 따라서 응답자군 사이에 차이가 있다. 모든 사서(25명) 및 문헌정보 전공자의 다수(14명)는 목록에서의 구두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두점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조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1.48%(44명)가 구두점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표 5〉 〈구두점을 알고 있는 경우〉도서의 내용 파악에 대한 분석표

구 분	사 서	일반 이용자		계	비 고
		문헌정보전공	비전공		
많은 도움이 된다	9(16.67)	5(9.26)	3(5.56)	17(31.48%)	Prob=0.152 (P < 0.01)
약간 도움이 된다	14(25.93)	7(12.96)	6(11.11)	27(50.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70)	2(3.70)	6(11.11)	10(18.52%)	
계	25(46.30)	14(25.93)	15(27.78)	54(100.00%)	

〈표 6〉 (구두점을 모르는 경우) 도서의 내용 파악에 대한 분석표

구 분	사 서	일반 이용자		계	비 고
		문헌정보전공	비전공		
많이 불편하다	0(0.00)	0(0.00)	4(19.05)	4(19.05%)	Prob=0.426 (P < 0.01)
약간 불편하다	0(0.00)	0(0.00)	9(42.86)	9(42.86%)	
전혀 불편하지 않다	0(0.00)	1(4.76)	7(33.33)	8(38.09%)	
계	0(0.00)	1(4.76)	20(95.24)	21(100.00%)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구두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 응답자군간에 차이는 없다 (P=0.152, P < 0.01). 반면에, 목록에서의 구두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불편한 지에 대한 조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를 분석한 결과, 목록에서의 구두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는 일반 이용자군에서만 21명이며, 이 중에서 구두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불편하다는 응답이 61.91%(13명)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구두점 사용에 대

해서는 구두점의 사용유무에 대한 논란보다는 목록 환경에서 사용되는 구두점을 이용자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5.2.4 서명저자사항에 저자를 모두 기술할 경우

‘온라인 환경에서는 서명저자사항에 표제지에 기재된 4인 이상의 공저자도 모두 기술한다’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서명저자사항을 기재한 두 개의 보기를 제시해 놓고 이용자에게 원하는 항목에 선택을 하도록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를 분석한 결과 Prob가

〈표 7〉 저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표

구 분	사 서	일반 이용자		계	비 고
		문헌정보전공	비전공		
공저자 모두 기재한다	24(32.00)	12(16.00)	33(44.00)	69(92.00%)	Prob=0.155 (P < 0.01)
대표저자만 기입한다	1(1.33)	3(4.00)	2(2.67)	6(8.00%)	
계	25(33.33)	15(20.00)	35(46.67)	75(100.00%)	

〈표 8〉 목차의 기술 여부에 대한 분석표

구 분	사 서	일반 이용자		계	비 고
		문헌정보전공	비전공		
공저자 모두 기재한다	24(32.00)	12(16.00)	33(44.00)	69(92.00%)	Prob=0.560 (P < 0.01)
대표저자만 기입한다	1(1.33)	3(4.00)	2(2.67)	6(8.00%)	
계	25(33.33)	15(20.00)	35(46.67)	75(100.00%)	

0.155이다. 그러므로 Prob가 유의수준 0.01(P < 0.01)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자군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전체 응답자 중에서 69명(92%)이 저자의 기술에 대해서는 공저자의 생략 없이 모두 기술할 경우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5 주기사항에 목차주기의 기술에 대해서

‘도서의 목차를 OPAC에 기술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놓고 이용자에게 원하는 항목에 선택을 하도록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상의 〈표 8〉에 나타난 바를 분석한 결과 Prob가 0.560이다. 그러므로 Prob는 유의수준 0.01(P < 0.01)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자군 사이에 차이가 없다. 도서에 제시된 목차의 기술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 중에서 74명(97.64%)이 OPAC에 목차를 기술하여 주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그 도서를 브라우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는 주기사항의 내용에 목차를 기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4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내용에 대해 실제로 사서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해 본 바, 앞에서 제시

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내용은 설문조사에서도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해 검증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용성이 있는 약자(예: p., cm)이외의 약자는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준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는, 범용성이 없는 약자는 완전철자로 써야 한다.
2. 구두점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과 구두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구두점 사용에 대해서는 구두점의 사용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목록 환경에서 사용되는 구두점을 이용자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많은 응답자들이 저자의 기술에 대해서는 공저자의 생략없이 모두 기술할 경우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는 표제지에 제시된 저자를 모두 기술해야 한다.
4. 응답자의 대부분은 목차를 기술하여 주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그 도서를 브라우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는 주기사항의 내용에 목차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에서 문헌을 통해 AACR2R과 MARC에 대한 비판과 전망을 살펴며, AACR2R에 대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현장의 편목 담당자와 이용자들의 견해를 설문조사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ACR2R과 MARC는 기본적으로 카드 목록의 환경에서 카드 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포맷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온라인 환경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둘째, Wajenberg, Gorman, Carpenter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AACR2R을 근본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Tucker는 서지기술부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AACR2R의 갱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온라인 목록에서는 기술항목마다 맨 앞에 기술사항을 표시해 주고, 사항마다 문단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있어서 누구나 이해하기가 용이하므로 온라인 목록에서는 ISBD의 구두법 중 마침표·빈칸·붙임표·빈칸(—)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ISBD의 구두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이므로 기타의 구두법은 그대로 사용하되 목록 환경에서 사용되는 구두법을 이용자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범용성이 있는 약자(예; p., cm)이외의 약자는 이용자에게 혼돈을 주게 되므로, 온라인 환경에서는 범용성이 없는 약자(예; tr., ill., rev. 등)는 완전철자로 표기해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목록에서는 카드 목록의 경우와는 달리 지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여러 저자에 의한 단행본 공저서의 경우도 그 수에 제한 없이 저자명을 기술사항에 모두 기술한다. 그러나 만약 각 저자의 분담표시가 명확한 경우의 저자표시에서는 첫 저자명 다음에 '등저'로 표시하고 여타의 저자명은 생략하되, 내용주기에서 각 저자명과 논제를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섯째, 단일저자의 저작도 가능한 주기사항에 주요한 목차를 기술하여 이용자들이 목록을 통해서 그 저작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목록에서는 모든 저자가 검색의 접근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공저자에 대해서 '저자명-키워드' (또는 논제)로 복식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갱신 사항들은 Tucker가 예견한 바와 같이 소폭의 조정으로서 Gorman 등이 주장하는 대폭적인 개정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상에서 제시한 사항을 수용하여 편목규칙을 새로 개정한다면 국제 표준화 시대의 온라인 목록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편목규칙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남태우. 1997. 목록법이론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 학회지』, 14(1): 223-254.
- 정필모. 1996. 온라인 환경에서의 편목법. 『도서관 학논집』, 25: 3-10.
- 정필모, 현규섭, 오동근 공역. 1993. 『서지정보의 상호교류』, 서울: 아세아문화사.
- Attig, John C. 1989. Descriptive Cataloging Rules and Machine-Readable Record Structure: some directions for farallel development.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uenonius. Phoenix, Ariz.: Oryx Press.
- Ayres, F. H. 1990. "Duplicates and Other Manifestations : A New Approach to the Presentation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Journal of Librarianship*, 22(4): 236-251.
- Boll, John J. 1990. "The Future of AACR2."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2(1): 3-34.
- Bourne, Ross. 1993. MARC: Strait-jacket or Opportunity. in *AACR, DDC, MARC and Friends: Role of CIG in Bibliographic Control*, edited by John Byford, Keith V. Trickey and Susi Woodhouse. London: Library Association.
- Brunt, Rodney M. 1992. "The Code and the Catalogue : A Return to Compatibility." *Library Review* , 41(3): 21-32.
- Carpenter, Michael. 1992a. Does Cataloging Theory Rest on a Mistake? in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it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 1992b. "The Narrow, Rugged, Uninteresting Path Finally Becomes Interesting : A Review of Work in Descriptive Calaloging in 1991 with Trail Marks for Further Research."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 36(3): 291-315.
- Fattahi, Rahmatollah. 1995.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20(2): 25-50.
- Gorman, Michael. 1989. "Yesterday's heresy, Today's orthodoxy : An Essay on the changing Face of Descriptive Cataloging."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0(6): 626-634.
- . 1991. "Searching for the Green Light :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Cataloguing Australia*, 17(3/4): 31-36.
- Gorman, Michael and Winkler, Paul W. 197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ision.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orman, Michael and associates. 1990. *Technical Services Today and Tomorrow*.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Hunter, Eric J. 1989. *Examples Illustrating AACR2 1988 revision*.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 Intner, Sheila S. 1988. "The Case for AACR3." *Technicalities*, 8(4): 6-8.
- Jeffreys, Alan. 1993. AACR after 1978. in *AACR, DDC, MARC and Friends: Role of CIG in Bibliographic Control*, edited by John Byford, Keith V. Trickey and Susi Woodhouse. London: Library Association.
- Lubetzky, Seymour. 1979. The Traditional Ideals of Cataloging and the New Revision, in *The Nature and Future of the Catalog*. edited by Maurice J. Freedman and S. Michael Malinconico. Phoenix: Oryx Press.
- Maxwell, Margaret F. 1989. *Handbook for AACR2 1988 Revision: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Richmond, Phyllis A. 1979. The AACR, Second Edition, What Next? in *The Nature and Future of the Catalog*. edited by Maurice J. Freedman and S. Michael Malinconico. Phoenix: Oryx Press.
- Rowley, J. E. 1989. "Towards AACR3: A review of the Implications of OPACs for Cataloguing Codes and Practices." *Library Review*, 38(3): 7-18.
- Sumner Spalding, C. 1973. "ISBD, its origin, rationale and implications." *Library Journal*, 15(1): 121-123
- Svenonius, Elaine. 1989.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 Tillett, Barbara. 1992. Future cataloging rules and catalog records, in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ited by R. P. Smiragli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Tucker, Ben R. 1992. Interpretation of 1988 Revision, in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it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Wajenberg, Arnold S. 1990. "The Future of Cataloging Standards." *Illinois Libraries*, 72(6): 494-497.
- Weih, Jean R. and Howarth, Lynne. 1988. *A Brief Guide to AACR2 1988 Revision and Implications for Automated Systems*.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